

국내외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 쓰다

2013 결산 불교계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불기 2557년 계사년(癸巳年)이 저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이 연임하는 등 불교계에 굵직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본지는 올해 불교계에 가장 주목받았던 '불교계 뉴스 10'을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본지 편집국 기자들이 1차로 선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을 거쳐 최종편집회의에서 결정했다. 불교신문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간단한 내용과 함께 사진으로 싣는다.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한국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한반도평화대회가 지난 9월2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성대하게 본대회를 개최했다. 5만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을 위한 축제'를 주제로 톨미니에서 이윤환 평화의 불 제막, 톨포츠 및 다양한 공연과 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한반도평화대회는 1월 천도재를 시작으로 국제학술대회, UN평화공원 위령제, 독도함에서의 풍등제, 평화음악회로 10개월간 이어지며 불교의 정신과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익수 기자 jsahn@ibulgyo.com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서울 진관사, 동해 삼하사, 마산 백운사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확정됐다. 지난 19일 문화재위원회 결의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지정 예고 후 일부 이의제기로 제동이 걸렸지만 명실상부한 국가 문화유산임이 확인됐다. 진관사와 삼하사 등 사찰의 지속적인 노력과 종단 지원으로 중요무형문화재가 된 수륙재는 전통 계승과 함께 소통과 융합으로 국가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아프리카에 농업기술학교 착공

한국불교 세계화와 자비 나눔의 세계적 실천을 위해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지난 9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기공식을 가진 농업기술고등학교는 오는 2014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201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교실과 양호실, 실습장, 도서관, 기숙사 등 학교 건립이 완료되면 2015년 8월 개교해 9월부터 정식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학년별 60명씩 2년제로 운영되며 농업과 임업, 축산, 컴퓨터 등 교육부 학제에 따른 교과목들을 통해 농업지도자 양성의 요람이 될 전망이다.

염태규 기자



수행풍토 진작 '8대 총림시대' 개막

지난해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 등 3개 교구본사가 총림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진제스님과 고산스님, 지유스님이 팔공총림, 쌍계총림, 금정총림의 방장으로 각각 추대되면서 종단은 8대 총림 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총림법 개정안도 올해 통과돼 종단의 화합과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개정된 총림법에서 방장은 각종 법문과 화두간백, 점점 등 남자들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돼 종합수행도량으로서 수행풍토 진작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조계종 1012 스님 '시국선언'

조계종 스님 1012인이 지난 11월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규탄했다. 스님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정부가 특검을 도입해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스님들이 공식적인 시국선언을 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결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나선 것으로 이 시국선언은 보수와 진보진영을 망라하고 전국에서 다양한 스님들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94종단개혁 후 첫 총무원장 연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월10일 치러진 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311표 가운데 179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선거과 열로 논란이 제기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하며 종단역사가 새로 쓰였다. 총무원장 스님은 "조심의 자세로 스스로를 타마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소임자로서 헌신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교구중심제, 신도시 포교, 승려복지제도 확대, 자성과 쇄신질사 추진방안, 중앙총무기관 조직개편, 수익법인 붓다드림 설립 추진 등은 34대 집행부의 주요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어현경 기자 eonardo@ibulgyo.com

'가장 불교적 불교박람회' 호평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2013 불교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불교산업의 활성화와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화두로 170여 개 단체가 힘을 모았다. 지난 3월7일부터 10일까지 연인원 6만여 명이 다녀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내방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람회에 선보인 콘텐츠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예술성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압도적인 물량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박수를 받았다. 단순 물건팔기와 상업주의의 색깔을 지우고, 불교만의 가르침과 향기로 채우면서 가장 불교적인 박람회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공생회 '생명의 우물' 2000기 완성

'지구촌은 한 가족, 한 생명'을 모토로 지난 10년을 달려온 국제개발협력NGO 지구촌공생회의 원력이 생명의 우물 2000기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지구촌공생회는 창립1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념식과 우물 2000기 완공행사를 거행했다. '생명의 우물'은 식수 부족과 시설의 부재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오지마을 20만명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결한 일등공신이다. 특히 주민들과 함께 정기적인 수질관리와 수량관리에 초점을 맞춘 철저한 우물관리는 타 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비구니 군승' 내년 파승 확정

군불교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비구니 스님의 군승(軍僧) 2014년 파승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25일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군종병과 여성인력 총 14명(기독교 8명, 불교 6명)을 배정하여 운영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2014년에는 육군에 불교 1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상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여군 군종장교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여성 특유의 감성적 에너지를 현장에 불어넣어 군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현재 군종교구가 교육 중인 비구니 예비 군승 1명은 내년 6월 정식 임관할 예정이다.



함께 꿈꿨, 함께 이룬 행복!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www.goodhands.or.kr

(사)지구촌공생회는?

종교, 정치, 문화, 이념, 피부색의 다름을 넘어 전 세계에 희망의 씨를 뿌리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2003년부터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생명의 물' 식수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빈곤퇴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지구촌이웃돕기
후원문의 02)3409-0303

■ 후원계좌
100026-55-003657(농협)

※(사)지구촌공생회는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지수집장, 버려진 동물병원에서 공부해야만 했던 네팔 툴미니의 어린이들.



깨끗한 물이 없어 웅덩이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만 했던 캄보디아 어린이들.

지구촌공생회가 10년간 키워낸 희망의 숫자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주민들...20만명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2,090기/미얀마 마을 물탱크 13기/케냐 마을 공동 우물 14기/몽골 마을 공동 우물 13기 건립 및 관리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된 천진불...5만명
아시아 9개국 유치원 12개, 초중고등학교 27개/청소년센터 3곳, 캄보디아 창원 국제교육협력센터, 라오스 이동도서관 운영, 공생교육펀드(해외이동 후원) 시행

케냐, 몽골, 스리랑카, 네팔 5개 농장 및 공동작업장 운영
공동농장, 재봉공동작업장 통한 주민 소득 창출

함께하는 분들

- 이 사 장 : 송철주(前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산사 조실, 영화사 조실)
- 이 사 : 자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영(금산사 회주), 성태(불국사 주지), 설승(화방사 주지), 도원(학림사 회주), 평생(백련사 주지), 지홍(불광사 회주), 선목(108산사순례지도회 회주), 원행(前금산사 주지), 지현(정령사 주지), 정념(월정사 주지)
- 감 사 : 월우스님(前 도강사 주지), 정연현
- 사무총장 : 원광(심원암 주지) 사무처장 : 화평(심곡사 주지)
- 미국 서부지부(지부장 현철스님), 전북지부(지부장 원광스님), 대전지부(지부장 광진스님), 대구지부(지부장 선지스님), 마산지회(지회장 정인스님), 서울 서부지회(지회장 송재봉), 전북지부 익산지회(지회장 박순자), 군산지회(지회장 박순호)
- 그리고...13,000여명의 후원자

"지구촌공생회 10년은 소중한 우물을 지켜 내려는 현지 정부와 주민들의 의지, 수 십리 길을 마다 않고 산간 오지에서 통학하며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아이들, 자신들이 키운 농작물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주민들의 밝은 웃음과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면서 빈곤 국가 주민들의 작은 아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과 후원단체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철주

캄보디아 우물 2000기 완공을 기념하고 있는 이사장 월우스님, 이사 원행스님, 아이들.